



### 임성화 광주 서구의원, '최우수 기초의원'

임성화(사진) 광주 서구의회 의원은 지난 13일 4·19혁명 기념관에서 열린 호남유권자연합(연합)에서 '2024 최우수 기초의원'으로 선정됐다.

임성화 의원은 사회환경 변화 및 아동·청소년·고령층·1인 가구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공공복지 증진 등 활발한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 기초의원상'을 수상했다. 연합은 "임 의원이 '서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다양한 주민의 안전과 권리 보장에 힘썼다"며 "광주 최초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실정과 수요에 부응하는 자치경찰사무 지원 등에 적극 나섰다"고 수상 선정 배경을 밝혔다.

임 의원은 "진심이 느껴지는 의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이 기자**



### 광주여성가족재단, 이웃돌봄 성과공유회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삼삼오오 이웃돌봄' 사업의 성과공유회를 지난 14일 광주시청 무등홀에서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삼삼오오 이웃돌봄' 사업은 광주시와 협력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따뜻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추진된 새로운 돌봄 서비스다.

아이와 부모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제공하는 돌봄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이웃 간의 맞돌봄 체계를 통해 기존 시설 기반 돌봄 서비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 돌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는 총 19개 공동체 67가구 225명이 해당 사업에 참여해 서로의 필요에 맞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많은 부모가 일상 속 돌봄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다. **박찬 기자**



### 건협 광전지부, 지역아동센터에 성금 전달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13일 광주 관내에 소재한 늘조은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했다. (사진)

15일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지역사회와 아이들을 위한 돌봄 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기부금 전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건강검진 및 봉사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철승 광주·전남지부 전략사업부장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희망과 행복을 나누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랑의 성금을 전달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시대의 보건의료 흐름 속에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철저한 방역과 쾌적한 검진 환경을 마련하는 등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 전남대병원, 환자안전 캠페인 최우수상 수상

전남대학교병원이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주관한 '다같이 해서 더가치 있는 환자안전 캠페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사진)

15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최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기술학술대회에서 '2024년 다같이 해서 더가치 있는 환자안전 캠페인'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남대병원은 환자참여 캠페인으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환자, 보호자가 진단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직접 체험하기(증상 정확히 말하기, 나를 알리기, 실천 다짐하기), 직원참여 캠페인으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직원들이 알아야 할 임상 관련 사항을 퀴즈로 알아보고 의료진 실천사항 수행 다짐하기 행사를 진행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인석 의료질관리실장은 "환자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으로 더욱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 광주시, 외국인정책소통 '외국인주민협의회'

광주시는 지난 14일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12개국 출신 외국인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주민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보다 많은 외국인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근무나 학교수업 등으로 평일 참석이 어려운 위원들을 위해 토요일에 회의를 마련했다.

지난달 새로 구성된 외국인주민협의회는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등 12개국 출신 20명의 외국인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위촉장 수여, 위원장 선출, 광주시 주요 외국인정책 공유, 센터 이용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외국인주민협의회는 광주시 외국인지원정책을 외국인주민들에게 안내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주민의 정책 의견을 수렴하는 외국인정책 소통창구 역할을 할 전망이다. **노병하 기자**



### 전남신보, 부패방지 시책평가 포상금 기부

전남신보보증재단은 올해 전라남도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로 받은 포상금 전액을 목포 소망장애인복지원과 여수 동백원에 기부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사진)

전남도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지역사회 반부패 가치 확산 및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도내 22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반부패 시책 추진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 정책 지역 확산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전남신보는 올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부패신고 모의훈련 △청렴감사관 제도 도입 △청렴 3無캠페인 등 다양한 반부패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그 결과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전남신보 임직원은 포상금 전액을 목포 소망장애인복지원과 여수 동백원에 각각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구입해 기부했다. **나다운 기자**

### KBC광주방송, 류영현 대표이사 사장 취임

KBC광주방송류영현(사진) 부사장이 제11대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13일 취임했다.

류 신임 사장은 1991년 세계일보 편집국 기자로 언론에 입문, 문화부장관 온라인뉴스국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에는 뉴스통신사인 UPI뉴스로 자리를 옮겨 편집인을 지냈다. 2021년부터 KBC광주방송에서 부사장 겸 서울광



역방송센터장으로 일했다. 류 신임 사장은 상명대 일반대학원에서 문학박사(콘텐츠학) 학위를 취득한 콘텐츠전문가로, 인문콘텐츠학회 부회장으로 맡고 있다. **나다운 기자**



### 광주 서구, 마음부자들 따뜻한 손길 이어져

#### KT&G 전남본부 1000만원 기탁 (주)나눔테크 등 서구 아너스 가입

광주 서구에 연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마음부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지난 12일 오전 KT&G 전남본부가 서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금 1000만원을 후원했으며 이어 오후에는 정상기업(주) (대표 이정오)이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을 위해 500만원 상당의 백미 200포를 기탁했다.

같은 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광주 사랑의열매) 후원자 그룹인 '서구 아너스' 회원가입식도 진행됐다. 정상기업(주) 이정오 대표는 5년 이내 5000만원 기부를 약속하는 '서구 아너브이아이피(HONOR VIP)'에 가입했다.

또 (주)나눔테크 최무진 대표는 '서구 아너 노블(HONOR NOBLE)'로 가입해 5년 이내 1억원 기부를 약속했으며, VIP1급자동차정비마을 김훈중 대표도 '서구아너(HONOR)'로 회원 가입해 5년 이내에 3000만원의 기부를 약속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후원해 주는 착한 영웅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2025년에도 민·관이 함께해 복지틈새 없는, 12달이 행복한 착한 서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 11월 서구청 로비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해 서구 아너스 회원들의 기부철학 등을 소개하는 등 기부문화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2명이 서구 아너스에 가입했다. **정상이 기자**



### '중식 대가' 이연복·'급식 대가' 이미영, 요리 맞대결

'중식 대가' 이연복과 '급식 대가' 이미영이 요리 대결로 맞붙는다. (사진)

15일 오후 9시에 첫 방송될 JTBC 예능물 '냉장고를 부탁해' (연출 이창우, 이란하)에선 원조 셰프와 도전자 셰프가 영탁의 냉장고 속 재료를 사용해 대결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게스트의 냉장고를 스튜디오에 그대로 가져와 유명 셰프들이 냉장고 속 재료로 15분 안에 요리를 만들어 대결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연복과 이미영이 보양식으로, 최현석과 에드워드 리가 달걀 요리로 양보 없는 맛 승부에 돌입한다.

먼저 대가의 타이틀을 건 이연복과 이미영의 진검승부에 관심이 쏠린다. '냉장고를 부탁해' 역대 승률 1위를

지향하는 이연복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떡볶이에 사용할 밀떡 만들기 와 만두 빚기에 도전한다.

반면, 이미영은 요리는 물론 설거지까지 하는 여유를 보인다라는 후문이다.

그런가 하면, 과거 '허세프(허세 셰프)'로 활약하며 재미를 선사했던 최현석은 "이제 소금기, 웃음기 빠지고 요리만 하기 시작했다"는 각오와 달리 유쾌한 입담을 이어간다.

그러나 동갑내기 에드워드 리와의 요리 대결에서는 그의 범상치 않은 개그 감각과 요리 스킬에 출연자들의 관심을 빼앗긴다는 후문이다.

제작진은 "무엇보다 두 사람이 대결 도중 요리를 중단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예고했다. **뉴시스**